

“나무 심고 꽃 심고 한 동아리로 살아요”



수덕사 사하촌에는 54개의 상가를 기반으로 400여 주민이 살고 있다.

수덕사 대웅전은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오래된 건축물이다. 오랜 세월 불자들의 마음 도량이 되었던 탓에 대웅전 기둥의 터진 자국들은 혈관처럼 도드라져 있다. 법화 삼매에 빠지는 듯한 느낌이다.

대웅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전각으로 석가모니를 위대한 영웅으로 일컫는 데서 유래했다. 주존 불인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좌우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봉안하였다. 정면 3칸, 측면 4칸의 겹처마 맞배지붕이며 정갈하게 만든 장대석으로 높은 기단을

만들어 담방주초를 사용하였다. 대웅전은 고려시대 작품이지만 백제의 기술적 토양 위에 만들어진 걸작이라고 알려져 있다. 영남지방의 직선적인 구조미와는 달리 곡선미를 지니고 있어서 아름다운 절집이다.

수덕사 자락에 안겨 있는 수덕사는 조계종 7교구 본사이며 5개의 총림 중 덕숭총림이다. 총림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선원, 강원, 율원, 영불원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수덕사에는 공부하는 스님들이 많아서 그런지 산문입구 소나무들도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 듯하다. 대개 고철들은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불교문화클러스터 사하촌을 가다

17 덕숭산 수덕사

설화 하나쯤 지니고 있게 마련인데, 수덕사에도 수덕도령과 덕숭산자의 아련한 사랑이야기가 배어 있다. 덕숭산자는 수덕도령의 청혼을 받아 주는 대신 비명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혼을 위로하기 위해 큰 절을 하나 세워 줄 것을 당부했다. 수덕도령은 수행을 하듯 절을 완성하지만 자꾸 불타버리고 만다. 남자에 대한 애뜻함으로 불사를 하여 끝내 절이 완성되었다. 촛불을 사이에 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남자가 잠자리만은 따로 하게 해 달라고 간청했다. 수덕도령이 끌어 오르는 열정을 어찌 못하여 남자를 끌어안는 순간 돌풍이 일며 남자는 사라지고 두 손에 버선 한 짝만이 남겨져 있었다. 그때서야 도령은 덕숭산자가 관음의 화신임을 알게 되었고 남자에 대한 애뜻함을 기리기 위해 절 이름을 수덕사라 부르게 하였다.

들에게 사진을 찍어주면서 삼남매를 가르치고 먹고 살았다. 옛날에는 수덕사 입구에 우람한 빛나무들이 꽃을 피워 관광객들을 끌어 모아 주었다. 도로를 넓히는 과정에서 오래된 나무들이 하나둘 없어져 그 풍광이 사라져 아쉽다고 했다. 개인용 카메라가 많지 않던 시절이라, 사진을 찍어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진사는 웬만한 월급쟁이 보다 수입이 좋았다. 관광객들 추억을 박제해 주며 생긴 일화들을 떠올리더니 그는 옛날로 돌아갔다. “사진을 찍고 현상하여 우편으로 보내는데 한 달이 걸렸지요. 오랜 친구들과 여행을 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배달되지 않아 사기 당한 줄 알았다며 염서를 보내온 사람도 있었어요. 기다림이 필요한 시절이었지요.”

관광객 발길이 끊이지 않아 장사가 잘 되어 사하촌



일주문과 맞붙어있는 사하촌.



수덕사 전경.



대웅전 뒷편의 관음보살상.

8년전 절 입구 정리 현재 54개 상가에 400여 명 살아 관광객 유치 위한 차별화 전략 절·마을 공동 노력 사찰 주변 개발로 인한 수행환경 파괴 문제 고민

그토록 안고 싶었던 덕숭산자에게 수덕도령이 안겨 있는 형상이다.

수덕사를 찾아가는 길은 험한 산이 길을 막지도 않고 강물이 길을 나누지도 않는다. 운천으로 유명한 덕숭산을 지나 구름지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따라 들어가면 덕숭산 품에 수덕사가 안겨 있다. 사하촌은 54개 상가로 형성되어 약 400여명 마을 사람들이 오순도순 모여 살고 있다. 대부분 절집 입구에서 노점상을 하며 살았는데 8년 전에 상가가 조성되어 깔끔한 환경으로 변했다. 빼꾸기 등지를 튼 셈인데, 절집 땅에 새로 집을 지은 것이다. 절집과 마을 주민들이 협의해서 해마다 도지를 올려 주고 산다.

사하촌에서 불교가 융성해지는 것 같아 참 좋다고 말하는 훈순목 이장님을 만났다. 큰아버지가 대처승이라 불가와 인연이 깊은 삶을 살았다며 지남이야기를 들려준다. “아렸을 때 절집에 가면 쌀밥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돌아오면 절집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던 시절이라 친구들과 데리고 가서 쌀밥을 먹여 주며 으스스대고 했지요. 부처님의 인연법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절집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장님은 젊은 날 수덕사 대웅전 마당에서 관광객

재미도 쏠쏠했다. 가게마다 종업원을 두어 두고 장사를 했는데, 지금은 식구들끼리 장사를 해도 바쁠 일이 없다고 했다.

사하촌이 발전하는 일이라든가 무엇이든지 회생하는 김용식 개발위원장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우리 마을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장사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지요.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절거리 불거리 먹거리 개발을 위해 주민들과 사람이 노력하고 있어요. 돈이 필요해 특별하게 추진을 하고 있지는 못하나 수덕사 조경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혼자사람들 의식이 농사를 지어서는 먹고 살 수 없다는 사고로 전환되면서 전 국토가 공원화 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7년 전 수덕사 아랫마을에도 개발바람이 불어 절집과 사하촌이 갈등을 겪었다. 절집 땅을 빌어 집을 짓고 살던 몇몇 사람들이 정부의 사하촌 개발 계획이 발표되자 절집에게 땅을 팔 것을 요청했다. 결국 조계종과 대립을 하게 된 셈이다. 지금도 그 양금이 남아 있어 절집과 사하촌의 관계가 서먹하다고 말하는 개발위원장은 지나친 대립이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했다. “개발을 위해 건이나 주장을 할 수 있지만 타협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립을 해서 발전이 없기

때문에 공생공존의 길을 찾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갈등으로 정답에 살던 마을 사람들 마음이 어두워졌을 때 절집 편과 동네 편으로 나뉘었지요. 지금도 마을들이 절집과 마을 발전을 위해서 한동아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하촌 사람들이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수덕사가 있어서 사하촌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 말은 하되 고마움을 알고 살아야 하는 것이 사람이지요. 그래도 올 봄에는 수덕사와 사하촌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무도 심고 꽃도 심었습니다.”

수덕사를 바꾸니 절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수덕사에는 국내 최초의 비구니 선방인 경성암과 환희대 사신내 입자로 있을 뿐 비구니 절은 아니다. 일엽 스님이 머물렀던 곳이라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원지 수덕사에서 잃어버린 사랑 하나쯤은 기억해 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다. 일엽 스님의 사랑과 수덕여관의 이용로 화백의 사랑과 수덕도령의 사랑이 흔재해 있기 때문일까.

예산=김삼미(수필가·본지 객원기자)

불교건축사 김현수 선생

독학으로 불교 조각 터득 동명불원의 나한전 등 작품



절집으로 오르는 길 옆 독특한 집에서 수덕사 불교건축사 김현수 선생 문화재기능 등록 제758호·사진을 만났다. 그가 일주일 만에 완성한 집이라는 데 해거름에 깃들고 싶은 집이었다. 실내에는 혼을 불어 넣어 조각하고 있는 불상들이 여기 저기 놓여 있었다.

서둘러 산을 넘어가는 해처럼 조각을 하게 된 배경을 묻자 소탈하게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설에서 가난하게 태어나 고등학교 진학에 어려움이 있어 부산으로 갔습니다. 세상살이는 부처님의 인연법에 얽혀 있다는 말처럼

림 나에게 좋은 인연들이 인생길에 서 있었지요.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는 부산에서 민방기지를 만나게 된 것이 내가 조각가로 살아가게 된 배경입니다. 일본 관광객들이 공예품을 싸들이 해가면 시집이라 깎기만 하면 돈이 되었어요. 목조각집들은 내 솜씨를 보고 자기 집에 와서 기술도 배우고 화교를 다니도록 편의 제공해 주었습시다. 기술 배우는 것이 절집해서 남들은 다 놀러나기도 작업실에서 지칠 때까지 기술을 익혔습시다.” 그는 인생은 혼자 터득하며 사는 것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스스로 문화재를 연구하면서 불교 조각을 터득하고 불상에 대한 개념도 책을 보며 공부했다. 또 다른 인생의 전환기를 맞게 된 것은 부산 동명불원을 지은 강석진 씨를 만난 것이다. 동명불원의 산신각 나한전 관음전 사천왕상 등이 그의 젊은 날 솜씨다. 미술학원을 하다가 불이 나 빈털터리가 된 그는 방황을 했고, 수덕사에 서 김기태 선생을 만나 다시 제자리도 돌아와 절집을 짓고 불상을 깎으며 살고 있다. 그의 최후의 바람은 죽기 전에 출가의 길에 들어서서 하는 것이다. 곁집 없이 살고 싶어서라며 바람 같은 말을 늘어놓았다.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지등 승강 장치(등부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참고: 찬덕연등에 사용된 케이블은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모시에는 법적제조자가 있음을 꼭 확인합니다.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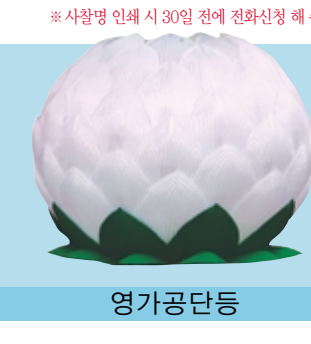
*사람명 인쇄 시 30일 전에 전화신청 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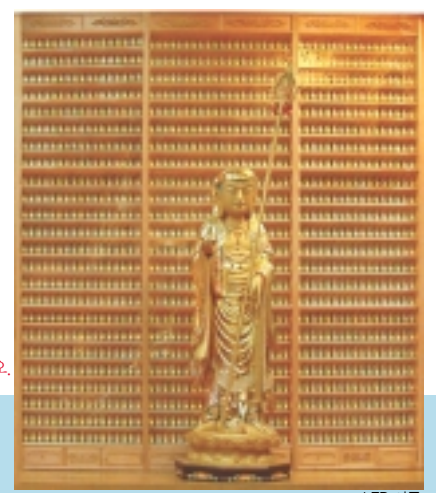
영가주름등



영가접등



영가공단등



LED 인등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중등



팔각봉축접등



주름등(만월봉축등)



청사초롱



영구위패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